

사회

“5·18정신은 부산서도 똑같았죠”

5·18 30+1년

새로운 30년을 위하여

<2> '부산의 5·18' 소설로 전하는 노재열씨

신세대에 참된 5·18 알려주고 싶어

“5·18 민중항쟁은 광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도 부산의 일상으로서 존재한다.”

부산 사나이 노재열(52·부산시 금정구 금사동)씨가 5·18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제목은 ‘1980년의 동화’(가칭)이다. 원고 분량은 900매. 현재 퇴고(推敲)를 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5·18 민주유공자회” 사무국장인 노씨가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부산의 5·18 민중항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노씨는 3년 전부터 80년 5월 당시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포함

한 부산 5·18 관련자들에게 대한 취재와 자료수집을 시작, 지난해 중순부터 집필에 들어갔다.

당시 부산대 4학년 학생이었던 노씨는 1980년 5월 19일 부산시 중구 남포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5·18 민중항쟁 발발 소식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계엄군에게 붙잡혀 이듬해 3월 3일에야 풀려났다.

노씨는 “5·18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광주에서만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에서도 광주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며 “5·18이 광주만의 일이었다고 여기는 게 매우 안타까웠다. 부산의 5·18을 알

리는 게기 됐으면 한다고 했다. 노씨는 “역사의 진실이 갖는 힘이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사회가 왜곡, 파행적 합의 구조로 어떤 모순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싶었다”며 “많은 망설였지만 요즘 젊은 세대(새로운 세대)들에게 5·18의 의미를 널리 알려주고자 출판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 소설이 5·18을 주제로 한 책들 중 하나의 문학작품으로서가 아니라 5·18의 ‘정사’로서 읽혀지기를 바란다”며 “부산의 5·18을 재조명하는 게기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노재열(52)씨가 9일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자신의 집 서재에서 부산의 5·18 민중항쟁을 다룬 소설 ‘1980년의 동화’를 집필하고 있다.

리기 위해 책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씨의 바람대로 이번 소설은 80년 5월 당시 부산 시민들의 활동과 처참한 피해 상황, 계엄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렸다.

5·18 민중항쟁에 대한 노씨의 시각은 5·18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초석이라고 하는데서 잘 드러나는데 이 소설에서 5·18은 결코 광주 오월이 아닌 부산의 오월을 중심으로 글을 썼다고 노씨는 설명했다.

노씨는 특히 5·18이 일부에 의해 왜곡 폄하되고 있는데, 부산 사나이가 쓴 만큼 이 같은 오해가 사라지

는 게기 됐으면 한다고 했다.

노씨는 “역사의 진실이 갖는 힘이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사회가 왜곡, 파행적 합의 구조로 어떤 모순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싶었다”며 “많은 망설였지만 요즘 젊은 세대(새로운 세대)들에게 5·18의 의미를 널리 알려주고자 출판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 소설이 5·18을 주제로 한 책들 중 하나의 문학작품으로서가 아니라 5·18의 ‘정사’로서 읽혀지기를 바란다”며 “부산의 5·18을 재조명하는 게기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5·18유품 전시 준비

5·18 기념문화센터 관계자들이 9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 1층 자료실에서 5·18 관련 유품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5·18 기념문화센터는 관련 유품들이 전시관을 건립하지 못해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에 따라 31일까지 전영진군의 시계, 박용준씨의 버클·만년필·동전, 시신에서 발견된 탄피 등 30점을 공개한다.

5·18 기념문화센터 관계자들이 9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 1층 자료실에서

5·18 관련 유품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5·18 기념문화센터는 관련 유품들이 전시관을 건립하지 못해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에 따라 31일까지 전영진군의 시계, 박용준씨의 버클·만년필·동전, 시신에서 발견된 탄피 등 30점을 공개한다.

나원침 (8310) 김중두



“피병 입원” 환자 금품 절도

여수경찰, 20대 구속

여수경찰은 9일 피병으로 입원한 뒤,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현금 등 금품을 털어온 혐의(절도)로 탄도(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탄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경 여수시 여수동 모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환자 이모(34)씨가 물리치료를 위해 병실을 비운 사이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탄씨는 이씨의 지갑을 훔친 후 자신이 10여일간 이 병원에 입원한 데 따른 입원비와 진료비 등 140만원도 정산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탄씨는 병원에서 속식을 해결하고 환자의 금품을 훔쳐내고 디스크 환자 등으로 속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4년부터 서울, 경기, 전남 등 전국 병원을 돌며 지금까지 총 40여회 같은 수법의 절도 혐의로 구속·복역하다 최근 출소된 지 10일만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여정한 뒤 오토바이 타고 물건 훔쳐

상다발

○광주서부경찰은 9일 여장을 한 뒤 물건을 훔쳐러다가 주인에게 부상을 입힌 이모(50)씨를 준강도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문모(47)씨의 중고물품 창고에서 2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20kg을 오토바이에 싣고 달아나려다가 자신을 쫓아온 문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절도범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블러우스와 미니스커트 등을 입어 여장까지 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돼 실소.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올 첫 비브리오패혈증 의심환자

보성서 80대 할머니 증상 12일째 최종 결과 나올듯

올들어 처음으로 보성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의심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군에 거주하는 정모(82) 할머니가 지난 2일 감기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심해지면서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증상이 나타났다.

이 환자는 지난 6일째부터 오른쪽

팔에 수포가 생기는 등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증세를 보였으며 현재 세균 배양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는 12일께 나올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11일부터는 평소 간기능이 좋지 않은 관내 고위험군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의의를 당부하기로 했다. 또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2052개의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보건 위생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해구 전남도 보건한방과장은

“어패류 생식을 삼가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며 “접객업소나 가정에서도 도마나 식기를 끓는 물에 소독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5~10월께 해수온도가 18~20℃ 이상일 때 주로 발생하며 간질환자, 알콜 중독, 당뇨, 폐결핵 등 만성질환자들이 오염된 해수를 접촉하거나 해산물을 생식할 경우 주로 감염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10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50%가 사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아파트 옥상 방수

대형 크레인 전복

9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단지에서 75m 높이 대형 크레인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1t 트럭 1대와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크레인은 운전자 정모(33)씨의 조작으로 아파트 옥상 방수 작업을 마친 뒤 철수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 차량이 갑자기 무게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거꾸로 가는 5·18

올 기념식장 충돌 우려 경찰 경비 강화

‘5·18 민중항쟁 31주년 기념행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5월 관련 단체가 바라는 행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져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5월 단체들은 31주년 기념행사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요구하고 있지만 9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과 5·18관계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할 행사가 관련 부처의 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 등은 오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치러질 3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한 5·18 구묘역, 도로 주변 등에 경비 담당 인력 2500명(33개 중대)과 경호 인력

600명 등 모두 3100명(추정)을 배치해 경계를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행사 당일 자체적으로 판단, 감호 또는 을호비상 근무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광주지방보훈청과 5월 관련단체, 31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등을 오가며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번 31주년 행사에서 기념행사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배제될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치안 계획을 다시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자칫 이번 행사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 치안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에 따라 치안 계획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31주년 기념행사 식순에 배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지난 2009년 29주년 기념행사 때부터 사라졌다. 당시 국가보훈처가 노래 제창을 금지하면서 5월 관련단체 등의 반발을 샀으며,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국가보훈처와 5월 관련단체가 이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별도의 행사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경찰 위급시 규정대로 총기 사용하라”

조현오 청장 지시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취객 난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취객이 관광객에 난입해 흥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이 흥기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벌어져자 탐정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

한 한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조 청장은 당시 하급자가 취객과 상대하는 동안 밖으로 나간 탐정에 대해 ‘총기라도 사용해서 제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은 조직에 남아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연남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경찰직

강의시간 :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출품강의

9급 야간반

강의시간 :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능업직/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능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명예, 귀, 행정, 행정, 관리, 행정, 행정, 교정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률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